

코로나사태 속 행복 찾기

이승헌

작년 늦가을로 기억된다. 코로나사태가 많이 진정되어 내가 사는 곳에서는 초등학교 전 학년 아이들이 모두 평소처럼 등교할 수 있었던 때가 있었다. 초등학교 근처에 사는 나는 오랜만에 이른 아침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재잘거림이 반가워 늦가을의 차가움도 마다하지 않은 채 한참동안 창문을 열고 아이들의 학교 가는 모습을 바라본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 등교모습에서 아이들의 숫자가 며칠 지나지도 않아 절반으로 줄어들더니 한 달도 채 버티지 못하고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되었다. 물론 내 손주들이 다니는 학교도 예외는 아니었다. 고학년이 된 손녀들이야 몇 년 동안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닌 후에 이 사태가 일어나 선생님들은 물론 친구들 얼굴도 다 잘 알고 있지만 손자 녀석은 입학식도 못한 채 학교에 들어갔고 선생님이나 친구들은 마스크를 쓴 채로 처음 만나 2학년 2학기가 된 지금도 변함 없으니 서로 이마와 눈동자만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친구들 얼굴 다 기억하냐고 물어봤더니 그저 고개만 끄덕였을 뿐 대답이 없었으니 기억에 자신이 없는 모양이었다. 그 동안 한시적으로 등교를 할 수 있었던 짧은 기간 동안 급식시간에 잠깐 벗고 친구들의 온전한 얼굴을 익혔다고는 하지만 학교나 사회에서 대하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해야 하는 권리를 너무 어린 나이에 박탈당하고 있는 모습이 안쓰럽게 여겨졌다. 손녀들 보다는 저학년인 손자 녀석이 지금까지 그나마 등교일수가 많기는 하였지만 기초학력저하보다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뛰어놀며 형성되는 인성이나 사회성 등이 결여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도 생겼다.

지금 보다는 만남의 단계가 낮았을 때의 어느 휴일 아침에 얼굴을 마주한 손자 녀석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자기가 만들었다

며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할아버지 앞에 거북이 모양을 한 장난감 자동차를 내어 놓았다. 자동차가 어떻게 스스로 가는지 시범을 보인다고 하더니 이내 많이 가지 못한다고 투덜거렸다. 몇 번을 무리하게 작동하는가 싶었는데 그 장난감은 곧 움직임을 멈춰버렸다. 요즈음 이 녀석들이 가지고 노는 자동차는 할아버지 세대의 그 나이에서는 상상도 못하였지만 할아버지 보다는 환경이 훨씬 좋았던 제 아버지의 그것과도 또 차이가 있다. 내가 이 녀석 아버지를 키울 때만 해도 자동차를 바닥에 놓고 뒤쪽으로 당기면 스프링이 감기고 그 스프링이 풀리는 힘에 의해 앞으로 나가는 것조차 신기하다고 하였는데 요즈음 아이들의 장난감은 배터리와 리모컨의 힘으로 작동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래도 제 아버들은 앞으로 튕겨나간 자동차를 가져와야 하고 다시 뒤로 힘을 주어 스프링을 감아주는 일을 반복해야 했으므로 그나마 놀면서 운동이라도 좀 되었지만 요즈음 이 녀석의 운동은 배터리와 리모컨이 대신하고 있으니 몸을 움직이며 노는 게 아니고 그저 한 자리에 가만히 앉아 조정한다고 하고 있다.

손자에게서 받아든 거북이 자동차의 손잡이 실을 아무리 놓았다 당기기를 반복하여도 자동으로 가지는커녕 손잡이 실조차 움직이지 않았다. 어찌 망가졌기로 전혀 움직임이 없는지 거북이를 뒤집어 보았다. 순간 내가 이 녀석 나이쯤 되었을 때의 기억이 강하게 떠오르며 입가엔 웃음마저 지어졌다. 거북이 자동차의 작동 원리가 내가 어렸을 때 친구들과 만들어 가지고 놀던 그 장난감과 같았기 때문이었다. 작은 도르래에 고무줄 두 줄을 빗겨 끼우고 그 도르래 중앙에 실을 감아 손잡이와 연결한 후 그 손잡이를 당기면 도르래에 감긴 실이 풀어지면서 고무줄을 꼬이게 하고 당겼던 실을 놔주면 꼬인 고무줄이 풀리면서 자동차가 스스로로 나아가는 원리였다. 비교하자면 이 녀석의 아버지세대가 가지고 놀던 스프링 자동차의 기초가 된 기술인 셈이다. 그런데 살펴보니 이 실이 도르래를 벗어나면서 고무줄과 엉켜 작동을 못하는 것이었다. 엉

켜진 실을 끌러내어 원위치 시키고 손자에게 그 작동 원리와 제대로 가지고 노는 방법을 설명하였지만 이미 배터리와 리모컨에만 익숙해진 손자에게 이 원시적인 장난감 자동차의 작동은 더 이상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사실 내가 이 녀석 나이에는 이런 질 좋은 고무줄도 없었을 뿐더러 질 나쁜 것조차 충분하지가 못하였으니 장난감 자동차라야 울퉁불퉁 깎은 나무바퀴를 못과 철사를 이용하여 판자에 달고 앞쪽에는 손잡이용으로 긴 끈을 매어 그것도 좋다고 끌고 뛰어다닌 게 거의 전부였다. 그런데 요즘 가끔 TV를 보면 가난한 아프리카 혹은 동남아시아 국가 아이들이 그런 걸 가지고 노는 장면이 비추일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난 옛 생각에 젖기도 하고 그 아이들에 대한 측은한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 할아버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손자 녀석은 배터리가 너무 빨리 없어진다고 앞으로는 충전용 배터리가 내장된 자동차를 사야겠다고 투덜투덜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코로나 사태로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집안에서 놀아야 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이 녀석의 리모컨구동 장난감 사랑은 깊어만 간다.

흡사 60여 년 전쯤 내가 그랬던 것처럼 TV속 그 아이들은 원시적인 장난감 자동차에도 즐거운 웃음이 끊이질 않고 있었다. 반면 손자 녀석은 배터리를 바꿔야겠다고 새것을 여러 개 가져다 놓고는 자동차의 배터리함 뚜껑을 조인 나사가 풀리지 않자 잔뜩 찡그린 얼굴로 혼자 끙끙거리고 있었다. 그래도 자존심을 세워보려 하였는지 할아버지의 도움을 요청하는 표정은 지었으되 말은 하지 않기로 난 그 표정을 애써 외면하였다. 아무리 편하게 작동되는 자동차라 해도 그것을 가지고 놀기 위해서는 다소간의 노력은 필요하다고 본인 스스로 느꼈으면 하는 생각에서였다. 잠시 후 할아버지 도움을 얻은 받아들이며 조금은 편한 표정을 짓는 이 녀석과 차 주인이 뛰어가야만 뒤따라 굴러가는 원시적 자동차에도 즐거움과 웃음이 만개한 그 아이들과의 차이를 행복에 관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 할아버지는 어찌 느껴야 할지 잠시 생각할 시간도 가졌

다. 배터리 교환형 장난감은 불편하니 충전용 배터리가 내장된 것을 갖고 싶어 하는 한 녀석은 미래지향적 욕심이 과한 반면에 다른 아이들은 자신의 나라에서도 생활환경이 다른 아이들은 디지털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도 현실적 환경에 더 만족감을 느껴야 한다고 체념을 한 것인지 생각하다가 이렇게 비교하는 것조차 아이들과는 동떨어진 어른 기준의 물질적 가치에 의한 행복의 비교는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다.

오고 감이 자유로웠던 어느 날, 지금은 먼 곳으로 이민을 가 살고 있는 친구가 서울에 다니러 와서는 예전에 단골로 다니던 보리밥집에서 점심을 하자고 나를 불러내었다. 2층 계단을 오르자 음식점 입구에 '3대가 모여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라고 적어놓은 글귀가 우선 내 눈길을 끌었다. 조선시대의 유명한 정승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소개가 붙어 있었는데 나는 그 분이 하신 말씀을 잘 모르는 터라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도 그 말은 찾을 수가 없어 소개된 정승의 이름은 밝히지 못하겠지만 그 분이 말씀 하셨건 아니면 음식점에서 장삿속으로 직접 지어낸 것이건 간에 당시 나도 3대의 중간에 있었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손주들과 식사를 같이 하시면 늘 즐거워하시던 어머니의 모습과 그 글귀가 친구와 점심을 먹는 내내 겹쳐지고 있었다. 그 후 나 자신이 그 3대의 첫 번째가 되고 손주들과 밥상을 같이 한 기회는 많았지만, 또한 어머니처럼 그 순간이 즐겁기도 하였지만, 내 즐거움에 스스로 과하게 젖어 있었는지 3대가 모일 때마다 매번 그 글귀가 생각나지는 않았었다. 그런데 코로나사태로 3대는커녕 2대가 모이기도 힘든 요즘에는 새삼 그 보리밥집 입구에 적혀있던 글귀가 귀하게 다시 살아나 계속 내 머릿속에 맴돌고 있다. 아마도 지금 누군가 나에게 '당신 행복의 첫째 조건은 무엇이나' 묻는다면 주저 없이 보리밥집에서 내세운 그 문구가 행복의 첫 번째 대답이 될 것 같다.

누구에게 묻던 간에 사람마다 자신이 바라는 바가 다르고 행복의 조건이 다르다. 물론 이런 것들은 각자의 주어진 삶의 환경이 많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요즘 TV를 보면 행인들에게 “지금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온다. 여러 가지 각자의 처해진 입장에 따른 대답들을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어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아무런 제약 없이 예전처럼 지내는 것”이라는 대답이 제일 많다. 이는 코로나라는 공통분모 때문에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였던 것들이 모두 귀하게 다가왔기 때문인 것 같다. 다행인 것은 3대가 한자리에 모여서 밥은 먹지 못하지만 세계에서 으뜸간다는 통신기술 때문에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어플을 통하여 3대가 얼굴을 대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행복은 주어졌다는 것이다. 코로나로 인한 원격수업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의 운영은 손주들이 할아버지보다는 더 익숙하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어플 운영에 좀 미숙하면 손주들이 가르쳐 주기도 한다. 이렇게 손주들에게서 배우는 것도 불행 중에서 얻어지는 행복의 하나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디지털환경이 충분치 못한 가정이 아직 국내에도 많이 존재하고 있고 뛰어다니며 가지고 노는 자동차 밖에는 없는 아이들에 대한 안쓰러운 생각이 같이 일어난다. 물론 그들 나름대로의 행복은 존재하고 있을 테지만.

오늘 오전에 예정대로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을 받으며 후유증 걱정보다는 안도감이 앞섰다. 어찌 보면 이 안도감마저 이 시대의 행복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이 되자 자식들과 손주들에게서 접종에 대한 안부 영상전화와 문자가 왔다. 손자 녀석에게 할아버지가 고쳐준 거북이 자동차 아직 가지고 노느냐고 물었지만 그 대답은 안 하고 대신 생일날 충전형 배터리가 내장된 드론을 선물 받았다고 집안 천장으로 날아가는 걸 보라고 영상전화 카메라를 비추었다. 그러면서 빨리 밖에 나가 마스크 벗고 친구들과 드론을 하늘 높이 날리고 싶은데 답답



하다고 투정을 부렸다. 그러나 보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이 할아버지에게는 영상전화를 통하여 그 투정을 듣는 것마저도 행복한 순간이 되었다. 이 녀석도 언젠가는 자신이 만든 그 원시적인 거북이 자동차에도 행복이 있음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3대가 밥상을 같이 할 수 있는 자유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쉽게 주어지지 않지만 곧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조차 행복의 한 단면이 되고 있다.